

2018년 11월 28일, 제주시 외도1동 절물마을회관, 이효순 조사.

좌사남(여, 1930년생, 제주시 외도1동)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출생, 제주4·3사건으로 고향을 떠나 한림읍 명월리와 한수리에서 살다가 현재는 외도1동 절물마을에서 10여 년째 거주하고 있다.

- 줄거리: 소천국 아들이 불효해서 무쇠석함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렸더니 용왕국에 들어가서 셋째 딸과 혼인을 했다. 소천국 아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용왕국이 망할 것 같자 부인과 함께 쫓겨나 제주도에 와서 좌정했는데 부인이 물을 마시자 코로 돼지털이 들어가 냄새가 나니 부정하다는 이유로 마라도로 귀양을 보냈다. 이때 작은부인인 용왕국 황제 딸이 마라도로 가서 큰부인의 귀양을 풀어 주고 큰부인의 일곱 아이를 대신 데리고 나오다가 한 아이를 잃어 버려 다시 가서 찾아왔다. 큰부인과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좌정하였다.

[제보자] 남군에 넘어가든 토산이렌 허는 마을이 있어. 소천국 아들이 솟아나시니까 거부령자가 났단.

[조사자] 거부령자가 뭐우꽈?

[제보자] 부령자. 효도를 못허고 불효자가 났단 무쇠쟁이 불러당 무쇠에 설갑을 채왕 죽으라고 바당에 띄와 불었어. 옛날에 그거 사람이 아니고 생인이주게. 경허당 떠 뎡기당 요왕 황제국 무에낭 상가지에 걸어정 흥갈흥갈 헤가난. 바당에 무나무가 잇주게. 무나무 상가지에 걸어정 항걸항걸 헤가난, 요왕 황제국에서

“큰꿀애기 나가 보라.”

“저 하늘에 벨이 승승허고 바다에 물결만 찰랑찰랑 했우다.”

“두 번째 꿀 나가 보라.”

“담구낭만 바람바람 허고 물결만 바람바람 했우다.”

“족은꿀아기 나강 보라.”

허난, 족은꿀아긴 나간 보난

“무나무 상가지에 무쇠설갑이 걸어젧수다.”

허난,

“큰꿀아기가 노력오라.”

허난

“못허쿠다.”

“셋꿀아기 노력오라.”

허난

“못허쿠다.”

족은꿀아기가 강 무나무를 흔드니까 무췌설갑이 살랑히게 내려왔어. 거난 그 무췌설갑 속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

“큰꿀애기 설갑을 올라.”

“못 올라.”

“둘췌애기 설갑을 올라.”

“못 올라.”

족은꿀애기가 그걸 올랐어. 올랑 보난 얼굴도 좋고 동자라. 책을 놓고 글소리만 읽었이난

“큰꿀애기 방으로 들라.”

문도 아이 거듭고

“셋꿀애기 방으로 들라.”

허난 문도 아니 거듭고

“족은꿀애기 방으로 들라.”

허난 싹 웃으멍 족은꿀애기 방으로 든 거라. 거난 석 달 백 일을 족은꿀애기 방에서 살아도 술도 아니 들고 아무것도 안 먹어. 아바님신디 가그네

“아바님아, 저 사위는 석 달 백 일을 살아도 술도 아니 들고 제도 아니 들렀우다.”

사위를 불령

“너는 왜 석 달 백 일 되도록 술도 아이 들고 제도 아니 들르냐?”

허난

“우린 이런 음식을 아이 먹습니다.”

“게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우린 백시리나 백돌레나 그런 맑은 거 음식밖에 안 먹습니다.”

허난 사위 하나사 못 먹이느냐 허영 동창궐도 올라, 서창궐도 올라. 곡석을 퍼  
내영 사위 먹음직한 걸 백돌레에 백시리여, 우물태기여 다 허영 왕 석 달 백 일  
을 멕이젠 허난 동창궐도 비어간다, 서창궐도 비어간다. 아이고, 톨아기보고

“느 남편 돌앙 기어나라. 나 집 망허겨.”

경허난 톨아긴 나가젠 허난 무쇄설갑에 돌이 탕 소천국 오젠 허난 그 아버님  
이 부술쭈치를 내어줬어. 무슨 거 썩 주고 허는 쭈치를 내어주난 그거 하나 가정  
무쇄설갑 안에 들영 소천국을 온 거라. 먼문에 오랑 닿으난 어명이 콩 불렸어.  
콩 불렸이난 정하님이

“아이고, 저 죽으렌 바당에 띄어논 아이 부에강 출령 올레에 오랏수다.”

들은 말 들은 디 버리고 본말랑 본디 버리라 죽으라고 내버린 아이가 출령 오  
느니. 오그렸다 폼다 허난, 거난 어명 콩 불리단 콩각지가 파짝 눈에 드난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아덜아기 들어오지 못허게 허난 아덜아기 들어오렌 허연 들어오난 소천국에  
잇당 ‘당 차지를 허젠 허민 소천국 알한디로 가그네. 남편이 가건 웃한질 오랑  
요왕국 황제 톨아기가 위로 가그네 토산으로 강 만나게.’ 허영 가는 것이 산으로  
가당 보난 막 목 마르난 산툫 자국에 물이 반직반직 헛이난, 목 마르난 이 물이  
라도 빨아먹저 허영 물을 빨아먹젠 영 었더지난 산툫 터력이 콧구멍드래 호룩허  
게 들어간 거라. 콧구멍드래 호룩허게 들어가난 이젠 소천국 토산으로 강 만나젠  
허난 강 만났 남군님 물 받앙 연조세 헤가난

“어떠난 부인으로 동경내가 났저.”

“동경내가 날 리가 잇수강? 막 목 몰르난 산툫 자국에 물 반직반직 시난 그  
물 빨아먹어 가난 콧구멍드래 산툫 꺼력이 들어강 그거밖이 부정한 게 었우다.”

“그게 부정 아님 뵈이냐.”

마라도 섬으로 귀향 보내 불렌 허연 귀향 보낸 거라. 물도 낭도 었인 섬더레  
귀향 보내난.

혼자 살 수 었이니까 소천국 톨애기를 후처로 돌아왔어. 후처로 돌아오난 집안  
에 었진 솟에, 물항에.

“큰부인이 었일 필요가 잇우가. 바른 대로 굴아야 살쿠다.”

허난 큰부인이 잇긴 잇어도 부정허영 물도 낭도 었인 섬으로 귀향보내 불었젠.

경허난

“본처를 박대허믄 후처도 박대허는 법이우다. 경허난 그 본처를 귀향 풀엉 오라  
사 붙엉 살주 귀향 보냉 내불민 후처도 박대 본처 박대허믄 후처도 박대합니다.”

이제 물도 낭도 없는 섬에 귀향 풀리레 족은집이, 소천국 뚝이 강 보난 아기  
일곱을 낭 오망오망 돌앙 앓았어.

“아이고, 성님. 아기 일곱 낭 오망오망 배고프고 애돌았구나. 성님이라그네 알  
로 바당 것들로 돌아가명 개보말 좇어먹으명 글로 강 속풀이허고, 남토산으로 강  
만나기로 협서.”

허영

“아기 일곱이랑 나가 말앙 가쿠다.”

아기 하나, 두 개, 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허연 세영 족은마누라가 말  
앙 간 거라. 업고 안고 허연 오당 보난 산방 뒷밭이 오난 삼동이 익엇이난 삼동  
탕 맥이명 물리명 허난 얼굴은 천하일색 곱고.

“아기 오랑 앓았저마는 여자 홀목이라도 잡아 봐사켜.”

허영 돌려들어가난

“도둑놈이야. 돈자, 돈자.”

허영 엮은 애긴 엮고, 안은 애긴 안고, 걸린 애긴 걸령 막 돈당 보난 애기 하  
나가 울돌아진 거라. 애기 하나가 떨어지난 이젠 남토산을 강

“아이고, 형님.”

강 보난 큰부인은 먼저 앞이 강 남편 무릎에 앉앙 연조세했구나. 게난

“아이고, 이거 바람은 불어도 애기나 말읍서.”

허영 하나, 두 개, 시 개, 네 개, 다섯, 여섯, 허난 하난 일러본 거라.

“아기 하나 무사 내불엇이니?”

경허영 닥달을 허난

“아이고, 형님아. 나 맘은 그게 아니우다. 오당 보난 도둑놈 만났 돈자, 돈자  
허당 보난 떨어졌수다.”

일러본 애기 지성귀 허영 와보난 아긴 삼동낭에 걸어정 삼동낭 가지로 얼굴도  
막 이디저디 형편엇언. 경허영 그 고냥에 걸리민 막 허멀나고 너벅부리 다친덴  
허주게. 삼동낭에 굶혀지난 그 아기를 안아그네 본향한집 어디 남토산드레 오당



아기 업어그네 아이고, 이제 아기 업엉 오락 보난 큰어명은 아기 여섯 맡으고 신  
랑이영 살았이난 아기 업은냥 옛날에 삼 삼앙 헛주게.

아기 발로 흔들멍 ‘은자동아, 업자동아, 잠을 자라.’ 아길 흔들멍 젖은 거라.  
발로 애기 흔들멍 허당 보난 오꼴 아긴 다 손아 불언. 아이고, 업들라 허영 구덕  
에 손아진 것이 그게 이제 그디 가그네 무슨 일 허젠 허문 그 본향 그 역사를  
허영 차롱작에 아기 눅정 흔들고, 요즘 똥 싸우는 거 기저귀 채우는 거 ‘똥 싸구  
나, 오줌 싸구나.’ 허는디

옛날은 아기 업엉 남방애 저쪽에 애기 업은냥 일려도 하라 당에 짓는 소리 허  
고 푼채로 이제 파탁파탁 헤그네 지는 통에 쌀 한 줌 놔그네 파탁파닥 부끄는  
소리 허고 부정됐젠 허민 안트레 돌아오고 밖웃드레 나간다 파탁파닥 먹으라 허  
영 경허난 이제 방애 지영 푼채를 풀곡, 짓곡 다 헤동 아기를 부령 보난 ‘아이  
고, 똥 싸구나. 오줌 싸구나.’ 허영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헤그네 그 아기를  
돌멍 누영 먹이고 이짜더레 돌앙 젖 멕이고 그추룩 허당그네 ‘돔배 하라. 조매  
하라. 아공 하라. 도리도리 허라.’ 허영 아길 놀리는 거라. ‘둥개둥개 허라. 오곤  
방이 지라. 돔배허라. 조매허라.’ 허명 아기 놀려그네 물려동 젖을 빌어먹여살로  
구나 허영 아이고 그거 하젠 하민 무신 거 하젠 하민 남자들도 다 모다그네 돈  
만 원씩 놓주. 풍습을 아니까.

이젠 그런 본향도 없주만은 경허영 우유값 얻으레 왓수다 허문 켜당들이나 형  
제들이나 옷 값허라 허영 돈 줘. 돈 주민 애기 치마 저고리 허영 아기 만들어그  
네 그 업엉 덩기당 돈 주민 아기 모포대로 허영 몬딱 곱져그네 남토산 어멍국드  
레 돌리자 허영 그거 남토산 어멍국드레 아길 돌리는 거라. 아길 돌리민 어디서  
얻어먹느냐 하민 그 당이 또 잊주게. 으드레당도 잊고 일렛당도 잊고. 일렛당 옛  
날 역사인디 그디 어멍드레 돌려 불민 끝이 나.

- 핵심어: 토산, 일렛당, 요왕국(용왕국), 무쇄설갑(무쇠석함), 산툫(산돼지), 터럭(털), 마라도,  
귀향, 소천국, 지성귀(기저귀), 켜당(친척), 남토산, 삼동냥